

융복합 시대의 정보 프라이버시와 신뢰 모델에 대한 실증 연구

박천웅*, 김준우**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유통사업실*,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An Empirical Research on Information Privacy and Trust Model in the Convergence Era

Cheon-Woong Park*, Jun-Woo Kim**

Dept. of Data Distribution & Business, Korea Database Agency*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그 자체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며, 또한 유출된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2차 피해로 발전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개인정보를 수집, 취급하는 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염려를 낮추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도출하여 실제로 개인정보 제공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와 신뢰가 개인정보 제공의도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소비자에게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낮추고 신뢰를 높여주는 정책이나 기술을 제공하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개인정보, 정보 프라이버시, 신뢰, 제공의도, IT 융복합

Abstract There has been an exponential growth in the distribution and possession of sensitive information because of the emergence of various information channels such as smart devices, social media, etc. This enables the internet based web or mobile service operation institutions collecting the more personal information with ease, and in turn causes the issues of the privacy concerns.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 information privacy concern has the negative effects upon the trust. Second, the information privacy concern has the negative effects upon the provision inten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trust has positive effects upon the offering inten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t last, the offering inten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has the positive effects upon the behavior to provide the personal information.

Key Words : Personal information, Information Privacy, Trust, Intention, IT Convergence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2013 Incheon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Fund.

Received 5 February 2015, Revised 23 March 2015

Accepted 20 April 2015

Corresponding Author: Jun-Woo Kim(Incheon National University)

Email: jwkim@incheon.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로 생활 속의 생태계 및 서비스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다. 다양한 디지털 기기(Digital Device)의 등장과 기술의 향상으로 이들 기기 이용자들이 모두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정보 습득자이자 생산자가 되는 웹(Web)3.0의 시대가 되었다.

이처럼 사회가 무제한 정보공유의 시대로 변화하면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개인들도 무의식적으로 개인정보를 웹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역효과로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는 다양한 정보 매체를 통해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며 공유하는 등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변모 시키고 있지만, 이렇게 생산된 정보가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등 정보의 역기능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몇 년 동안 정보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를 기반으로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정책연구와 기술적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오히려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유출 사고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확산이 급속하게 가속화하면서 침해 위협이 증가하였고 또한 기존의 정보 프라이버시 연구들이 가지고 있던 한계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기술적·도구적 관점에서 사용자의 위협과 이익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태도와 의도를 설명하였으나 법·제도적 측면에서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연구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었다.

또한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역할에 대해 다른 접근 형태의 방법이 부각되고 있다. 예컨대 개인정보는 개인적 가치로 개인의 내외면, 사회관계 등을 나타내는 보호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산업적 목적으로는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하여 영업활동 및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

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개인적 가치와 활용할 수 있는 산업적 가치로 인식하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필요성을 바탕으로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와 신뢰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행동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개념은 사회적·문화적 의미를 지니는 개념으로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고 주관적이며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 의미가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개념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문명발달에 의해 복잡해진 인간생활로부터 피할 수 있는 권리 즉 '홀로 있을 수 있는 개인의 일반적 권리'[1], 둘째 어떠한 환경이든 개인의 신체나 태도 및 행위를 타인에게 얼마나 노출할 것인지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2], 셋째 인격권으로서 인격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주성, 존엄과 완전성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3] 등 다양한 의미로 설명되고 있다.

프라이버시는 신체 보호를 위한 개념에서 출발하였으나 이후 공간과 의사결정,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보호로 영역이 확대되면서 정의도 확대되었다. 이처럼, 프라이버시의 정의는 시대와 상황이 변함에 따라 그 의미가 변화되어 왔으며 매년 1,200개의 새로운 연구 논문과 보고서가 발간되고 있다[4,5].

2.1.1 정보 프라이버시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국가기관간의 정보 연계 등을 통하여 국가가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수집하게 되면서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비롯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국가차원에서뿐 아니라 기업 등의 역할 증대와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의 활성화로 온라인을 통한 의사소통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개인정보의 남용, 잘못된 관리, 프라이버시의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3자가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해 정보주체가 관여할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나

1)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건수는 2010년 54,832건에서 2013년 177,736건으로 3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의 유출·악용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나타내는 ‘정보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프라이버시는 보다 넓은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 프라이버시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개인의 통제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말하고 있다. 이는 정보화 시대의 프라이버시 개념이 개인정보 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에 초점을 두게 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타인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리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6]. 즉 정보 프라이버시는 어떠한 대상이 개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 보유 할 것인지, 정보제공에 따른 정보 보유와 운영이 안전한지에 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이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로 정의할 수 있다.

정보 프라이버시는 점차 기존 개인정보의 개념이 인격권과 재산권이 혼재된 새로운 영역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는 개인 프라이버시 측면의 인격권이라는 개념과 고객정보 측면의 재산권이라는 개념이 상호 양립되고 있는 상황으로 진전된 것이다. 이러한 정보 프라이버시는 디지털화된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정보 프라이버시의 개념도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2.1.2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인터넷이 활성화 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저장·관리가 손쉬워지고, 또한 데이터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가 부각되었다. 이러한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는 자발적 혹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개인의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손실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나타내는 것이다[7]. 이와 같이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를 측정하는 개념을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Information Privacy Concern)로 정의하며 정보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수행되는 조직의 다양한 활동에 따른 사용자의 인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8].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걱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보화 시대가 발전하면서 더욱 높아졌다. 이는 정보 시스템의 유용성이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제공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종류도 많아졌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로 소비자들 정보 프

라이버시에 대한 염려를 갖게 되면서 관련 연구도 발전하였다.

Culnan(1993)은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개인정보에 대한 감시, 저장, 검색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향상된 정보기술의 존재에 대해 소비자가 느끼는 위협’이라고 하였으며, Smith et al.(1996)은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는 ‘수집, 비인가된 2차사용, 부적절한 접근, 오류, 자료의 결합 등 다양한 우려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정의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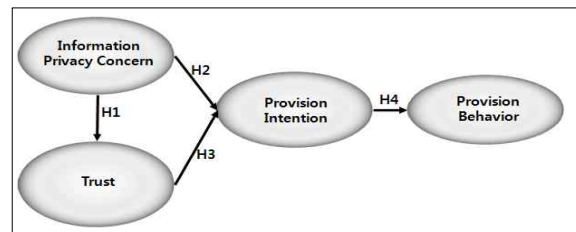
2.1.3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와 신뢰

신뢰는 일반적으로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먼저, Morris, Moberg(1994)는 신뢰 대상에 대한 신뢰자의 기대라고 정의하였으며, Schneiderman(2002)은 프라이버시와 안전에 대한 보증 등에 의해 상호간 충성도를 획득해 가는 과정 이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온라인 환경의 정보 공유나 교환 상황은 행위 당사자 간의 비대면적 관계로 인해 보안 염려에 대한 불신 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는 정보시스템 연구에서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13,14,15,16].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데이터 유통과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와 신뢰가 개인정보 제공의도와 행동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인지적 경험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Fig.1]과 같이 제시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

[Fig.1]을 바탕으로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와 신뢰가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는 신뢰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는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 신뢰는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 개인정보 제공의도는 개인정보 제공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측정 도구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행동을 연구하기 위해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와 신뢰가 개인정보 제공의도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문 항목을 구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변수의 조작화는 기존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실행하였으며, Measurement of variables은 <Table 1>와 같으며, 척도의 모든 항목은 5점 Likert 스케일로 하였다.

<Table 1> Measurement of variables.

Variables	Contents
Information Privacy Concern	·Collection, Secondary use, unauthorized access ·Concerns of giving out personal information
Trust	·Trust in the company
Provision Intention	·Personal information provision intention
Provision Behavior	·Personal information provision behavior

4. 실증분석 및 논의

4.1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실증연구를 위해 설문대상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금융거래, 쇼핑, 자료 검색 등의 경험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은 구성된 측정항목을

바탕으로 2014년 10월 10일부터 26일까지 총 17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배포하였으며 총 427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이중 결측치를 포함하거나 모든 항목을 동일하게 체크하였거나 중간값으로 통일하는 등의 불성실한 응답 31부를 제외한 396부가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이용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의 결과로 나타난 각각의 요인을 토대로 AMOS 18.0을 활용한 구조방정식의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은 10대 7.8%, 20대가 42.4%, 30대가 26.3%로 나타났으며, 20~30대의 연령대가 표본의 다수(78.7%)를 나타내고 있다. 학력은 중/고교재학 32명(8.1%), 고교졸업 13명(3.3%), 전문대(재학/졸업) 18명(4.5%), 4년제 대학재학 138명(34.8%), 4년제 대학졸업 98명(24.7%), 대학원 이상 97명(24.5%)로 나타났다. 직업군은 중/고교생 41명(10.4%), 대학(원)생 134명(33.8%), 사무직 98명(24.7%), 공무원 8명(2.0%), 전문직 49명(12.4%), 연구직 27명(6.8%), 자영업을 포함한 기타 39명(9.8%)으로 다양한 직업군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4.2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토대로 다양한 측정항목의 신뢰성 검토를 위해 Cronbach's Alpha(α) 계수를 활용하여 신뢰성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0.8이상이므로 나타났으며,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수많은 변수들을 가능한 적은수의 요인으로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 주성분분석(PCA :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요인의 회전은 항목의 축소와 각 요인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요인들간의 상호독립성을 유지하며 회전하는 방법인 직각회전(varimax rotation)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결정방식은 요인이 설명해주는 분산의 양을 의미하는 고유값(Eigen Value)이 1이상인 요인을 선정한 결과 <Table 2>과 같이 4개의 요인으로 묶였다.

<Table 2>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Factor		Reliability	Eigen Value
	Con1	Con2		
Information Privacy Concern	Con1	.775	.892	3.372
	Con2	.866		
	Con3	.829		
	Con4	.722		
	Con5	.775		
	Con6	.786		

Trust	Tru1	.736	.928	7.134
	Tru2	.853		
	Tru3	.846		
	Tru4	.849		
	Tru5	.865		
	Tru6	.765		
Provision Intention	Int1	.689	.876	2.349
	Int2	.834		
	Int3	.796		
	Int4	.784		
	Int5	.733		
Provision Behavior	Beh1	.699	.851	1.688
	Beh2	.827		
	Beh3	.869		
	Beh4	.853		

4.3 가설검증

본 연구는 정보 프라이버시와 신뢰 모델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검증을 위한 방법으로 다수의 독립, 종속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과 가설을 검증하는데 사용된 유효한 표본의 수는 396개이며, 계수 추정을 위한 최우도추정법(ML : Maximum Likelihood)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와 신뢰가 개인정보 제공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먼저, 모델 적합도를 살펴보면 $X^2 = 1116.773(df = 542 / p = .000)$, RMR = .044, GFI = .893, AGFI = .866, RMSEA = .080이며, CFI = .912 등의 모델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가설에 대한 통계 검증의 결과이다.

우선,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와 신뢰에 대한 표준화 경로계수는 -.348이고 t값은 -21.709**(p < .000)로 나타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는 신뢰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둘째,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와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대한 표준화 경로계수는 -.100이고 t값은 -6.519**(p < .000)로 나타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을수록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셋째, 신뢰와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대한 표준화 경로계수는 .500이고 t값은 26.949**(p < .000)로 나타나 신뢰는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제공의도와 개인정보 행동에 대한 표준화 경로계수는 .397이고 t값은 21.246**(p < .000)로 나타나 개인정보 제공의도는 개인정보 제공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도 채택되었다.

<Table 3> Standardized factor loading, CR, P and SC

Constructs		UC	SE	C.R	P	SC
Con	→ Tru	-.429	.020	-21.709	.000	-.348
Con	→ Int	-.107	.016	-6.519	.000	-.100
Tru	→ Int	.438	.016	26.948	.000	.500
Int	→ Beh	.388	.018	21.246	.000	.397

5. 결론

급격한 IT환경의 변화로 많은 양의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으며, 이렇게 생산된 데이터에는 개인의 정보가 담긴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개인정보는 정보 프라이버시 문제와 함께 학계와 산업계에서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 특히 정보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신뢰와 염려에 대한 이슈는 결국 실제 사용자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꺼이 제공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논의로 귀결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와 신뢰가 과연 개인정보를 제공할지의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분석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신뢰의 선행변수로 설정하여 연구한 결과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는 신뢰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도가 낮아지면 개인정보를 수집, 취급하는 기업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개인정보 제공자는 이전 보다 쉽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수집, 취급하는 기업은 소비자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와 신뢰가 개인정보 제공의도간의 연구결과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을수록 개인정보 제공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가 높

을수록 개인정보 제공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 제공의도가 높을수록 제공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를 수집, 취급하는 기업은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도를 낮추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개인정보 제공자의 정보 제공의도가 높아질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제공의도와 제공행동 간의 연구결과 기존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와 신뢰가 개인정보 제공행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연구모델 및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는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신뢰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가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주는 영향도와 신뢰가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주는 영향도를 고려하였을 때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가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대한 설명력이 매우 미약한 것은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하여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한 생각이 감소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와 신뢰에 대한 이슈가 사용자의 개인정보 제공행동을 저해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정책 및 신뢰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와 신뢰 형성에 대한 사례와 이슈를 인지하여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 실무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의 시사점을 지니고 있지만 반대로 그 한계점도 있는 바, 이를 지적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전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측면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개인정보 활용 측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변수를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속성을 세분화 하여 타 요인과 비교·분석해야 할 것이다.

연구변수들에 대한 응답자의 규모 확보, 편차 및 표본 샘플링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한정된 표본 수만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일반화를 위한 충분한 연구결과를 얻기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 일반화 및 다양한 연구방법의 적용을 위해서 보다 많은 표본과 다양한 수준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표본을 확보하는 것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ACKNOWLEDGMENT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2013 Incheon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Fund.

REFERENCES

- [1] S. D. Warren, L. D. 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Harvard Law Review*, Vol. 4, No. 5, pp.193-220, 1890.
- [2] Westin, Alan. F. *Privacy and Freedom*, New York : Atheneum., 1967.
- [3] Edward J. Bloustine. Privacy as An Aspect of Human Dignity, *New York Univ Law Review*, Vol. 39, pp.962-1007, 1964.
- [4] Knijnenburg, B. P., Kobsa, A. and Jin H. Dimensionality of Information Disclosure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Studies*, Vol. 71(12), pp.1144-1162, 2013.
- [5] Patil, S., Kobsa, A. Privacy Considerations in Awareness Systems: Designing with Privacy in Mind, In: Markopoulos, P., de Ruyter, B., Mackay, W. (Eds.), *Awareness Systems: Advances in Theory, Methodology and Design*, Springer Verlag, Berlin, Heidelberg, New York, pp.187 - 206, 2009.
- [6] Buchanan, T., Paine, C., Joinson, A. N., Reips, U. D. Development of Measures of Online Privacy Concern and Protection for Use on the Internet,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s and Technology*, Vol. 58, pp.157-165, 2007.
- [7] Xu, H., Dinev, T., Smith, H. J., Hart, P. Examining the Formation of Individual's Privacy Concerns: Toward an Integrative View, In: *Proceedings of the 2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 Systems, Paris, France, pp.1981 - 1996, 2008.
- [8] Stewart, K. A., Segars, A. H.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Concern for Information Privacy Instrument,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 13, pp.36 - 49, 2002.
- [9] Culnan, M. J. How Did They Get My Name? : An Exploratory Investigations of Consumer Attitudes toward Secondary Information Use, *MIS Quarterly*, Vol. 17, No. 3, pp.341-363, 1993.
- [10] Smith, H. J., Milberg, S. J., and Burke, S. J. Information Privacy: Measuring Individuals Concerns about Organizational Practices, *MIS Quarterly*, Vol. 20, No. 6, pp.167-196, 1996.
- [11] Morris, J., Moberg, D. Work Organizations as Context for Trust and Betrayal, in Theodore R, Sarbin Ralph M, Carney and Carson Eoyang(eds), *Citizen Espionage: Studies in Trust and Betrayal*, Praeger Publisher, 1994.
- [12] Schneiderman, B. Designing Trust into Online Experience, *Communications of the ACM*, 44(12), pp57-59, 2002.
- [13] Gefen, D. E-commerce: The Role of Familiarity and Trust, *omega: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Science*, Vol. 28, No. 5, pp.725-737, 2000.
- [14] Gefen, D., Karahanna, E., and Straub, D. W. Trust and TAM in Online Shopping : An Integrated Model, *MIS Quarterly*, Vol. 27, No. 1, pp.51-90, 2003.
- [15] Mayer, R. C., Davis, J. H., and Schoorman, F. D.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0(3), pp.709-734, 1995.
- [16] Rousseau, D, Sitkin, S. Burt R. and Camerer, C. Not So Different After All: A Cross-Discipline View of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3, No. 3, pp.391-404, 1998.

박 천 응(Park, Cheon Woong)



- 2003년 2월 : 인천대학교 독어독문학과 (문학사)
- 2006년 2월 :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 석사)
- 2015년 2월 :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 박사)
- 2007년 12월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정보센터 연구원
- 2009년 7월 ~ 현재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선임연구원
- 관심분야 : 프라이버시, 데이터 유통, 개인정보 활용
- E-Mail : cwpark@kodb.or.kr

김 준 우(Kim, Jun Woo)



- 1985년 8월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 석사)
- 1988년 8월 : University of Virginia(경영학 석사)
- 1992년 8월 : University of Virginia (경영학 박사)
- 1992년 8월 : 한국통신 선임연구원
- 1994년 8월 ~ 현재 : 인천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프라이버시, MIS, 데이터베이스
- E-Mail : jwkim@incheon.ac.kr